

영화 버닝 속 변호사와 종수의 대화 장면

변호사 아버지의 이야기를 쓰는 거 어때? 내가 보기엔 네 아버지야 말로 소설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야. 파란만장하잖아 인생이.

종수 변호사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하지만 변호사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아닌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다.

변호사 진짜 또라이였다. 원래 또라이가 소설의 주인공이 되잖아. 파주 제일 고등학교 전체에서 일등이었어. 성적 말고 자존심이.

종수,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

변호사 중동에서 개고생하고 왔을 때 내가 그랬다. 그 돈 갖고 강남 어딘가 가서 아파트 한 채 사두라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근데 안 한대. 그 자존심땀에. 그러고는 고향에서 무슨 축산업 한다. 어쩐다 이러다 다 말아 먹고, 지금 저렇게 됐잖아.

마치 변호사가 종수를 혼내는 것 같은 모습이다.

변호사 지금도 그래. 피해자한테 싹싹 빌고, 반성문 쓰고, 피해자한테 탄원서 올리고 그래야 집행유예라도 바라볼 수 있는데 안 한다잖아. 고집 부리고. 변호사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너를 보자고 그런거야. 아버지 면회 가서 잘 말씀드려봐. 그 성질 죽이고 반성문 좀 쓰시라고. 내일이라도 당장.
(종수의 무릎을 손으로 치며) 어? 알았지?

종수를 못마땅하게 보는 변호사와 불편한 모습의 종수.